

# 최용석

서울캠퍼스 [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](#) 교수이자 현재 [정보통신처](#)장이다. (2020.01.01~)

- 위치: [ITBT관 403-1호](#)
- 연락처: 02-2220-1139 / [cys@hanyang.ac.kr](mailto:cys@hanyang.ac.kr)
- 연구실: [인공지능 연구실](#)

□

## 목차

- [1 학력](#)
- [2 연구분야](#)
- [3 연구](#)
  - [3.1 한양대 공동연구팀\(최용석·김한성·손동영 교수\), 한국사회 실시간 감정지도 개발\(2020.10\)](#)
  - [3.2 불안감정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추이 상관성 분석\(2021.05\)](#)
- [4 최용석 교수팀, 4개 기술 기업 이전](#)
- [5 소식](#)
- [6 교내 매체](#)

## 학력

- PhD in CS, Seoul National University, Korea
- MS in CS, Seoul National University, Korea
- BS in CS, Seoul National University, Korea

## 연구분야

- Artificial Intelligence
- Information Retrieval
- Intelligent Tutoring System
- Machine Learning
- Artificial Neural Network

## 연구

### [한양대 공동연구팀\(최용석·김한성·손동영 교수\), 한국사회 실시간 감정지도 개발\(2020.10\)](#)

- 공동연구팀이 한국사회가 느끼는 감정의 수준을 전국 시군구 단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'감정지도'를 개발했다.
- 해당 지도에서는 △불안 △분노 △혐오 △공포 △기쁨 △놀람 △슬픔 등 7개 감정을 색깔별 농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놀람 감정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짙은 초록색으로, 낮은 지역은 연두색으로 표시된

다.

- 이러한 연구결과와 감정지도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확인해 여론을 감지하거나 경제 불평등, 정치 양극화,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
- 불안 지도는 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
  - 홈페이지 URL : <http://sentimap.hanyang.ac.kr/>
- 교내 기사: <뉴스H> 2020.10.07 [한양대, '한국사회 실시간 감정지도' 개발](#)

## 불안감정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추이 상관성 분석(2021.05)

- 2018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게재된 23만 6592개 트위터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 모델을 적용해 판별한 일일 불안감정 평균과 코로나 확진자 수를 시계열(time series)로 나타냄
-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전국적 불안 수준의 실시간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
- 교내 기사 : <뉴스H> 2021.05.07. [한양대,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민감도감소 현상을 딥러닝 기법으로 최초 확인](#)

## 최용석 교수팀, 4개 기술 기업 이전

- [2017년](#) 인공지능(AI) 분야 전문가 그룹 최용석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팀이 2017년 특허 2건과 SW 1건 등 총 4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다.
  1. 법률 관련 전문기업인 리걸테크(LegalTech)에 '변호사 중계 사이트 질의 응답을 위한 대화형 챗봇 기술'을 이전했다. 리걸테크는 이 기술로 변호사 매칭시스템 '리걸 챗봇'을 개발해 해외수출을 추진 중이다.
  2. 영어 교육 소프트웨어기업 올인원에듀테크는 최 교수팀의 '스마트 개인화 학습' 관련 특허와 SW를 이전받아 사용자 오답 패턴과 학습패턴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영어회화 서비스 '영어판다'를 제공한다.

## 소식

- 2020.01.06 [의학연구지원센터 인공지능 연구네트워크 특강](#) 4회 '인공지능 현황 및 최신 응용'을 주제로 발표

## 교내 매체

- <뉴스H> 2025.03.19 [[신문 읽어주는 교수님](#)] '딥시크 쇼크'와 국내 AI 시장의 미래